

휠체어 고속버스 환영하지만...장애인들 “여전히 눈물 난다”

국토부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 정책’ 후속대책 시범사업

전장연 “내년도 예산안 증액 없어...구체적 로드맵 있어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정부의 ‘제3차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계획’ 아래 추진 중인 ‘휠체어 탑승가능 고속버스’ 시범사업에 환영하면서도 기획재정부에 “교통약자법 가치를 예산 문제로 훼손하지 말라”고 주장했다.

전장연은 28일 오후 서울 서초구 반포동 강남고속버스터미널 경부선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전장연 회원 중 2명은 이날 휠체어가 탑승할 수 있도록 개조된 고속버스에 활동보조원 2명과 함께 타고 강원 강릉을 향한다. 이는 전장연과 국토교통부가 2017년 9월 ‘함께 누리는 교통, 누구나 편리한 교통

을 위한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 정책 공동발표’ 후속대책으로 이뤄지는 시범사업이다.

국토부는 이날부터 3개월간 서울↔부산, 서울↔강릉, 서울↔전주, 서울↔당진 4개 노선에 금호·한화·한일·동부·중앙·동양·전일·한양·충남·대원 등 10개 버스회사가 참여해 사업이 이뤄졌다고 밝혔다.

전장연은 포기하지 않고 함께 투쟁한 동지와, 협력해 준 국토교통부에 감사의 뜻을 표하면서도 “여전히 (기쁨과 분노의) 눈물이 난다”고 밝혔다.

2006년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교통약자법) 시행 뒤 ‘장애인 이동권’의 저항과 투쟁 13년 만에 결실을 맺

었지만 2020년 예산안에 해당 부분 예산 증액이 없이 올해와 같은 13억4000만원만 책정됐기 때문이다.

이에 박김영희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공동대표는 “휠체어 탑승 가능 고속버스에 대한 구체적인 예산 반영과 운영에 대한 로드맵이 있어야 한다”며 “2020년 이후 본 사업으로 전환한다는 정부의 계획이 과연 실현 의지가 있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박경석 전장연 상임공동대표는 “추상적인 바람만 내놓고 싶지 않다”면서 “시외버스 마을버스는 휠체어를 이용하지 못하고 있는데 쓰레기통에 휴지처럼 내팽개쳐진 장애인

의 이동권을 (앞으로도) 바라만 보고 있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예산과 관련해 “돈줄을 쥐고 권리를 무시하는 기획재정부를 향해 분노하고 싸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장연은 휠체어 버스의 48시간 이전 예약 불편, 휴게소 휴게시간 문제, 비장애인과의 분리 탑승 등 문제를 지적하면서 “향후 5년 이내에 전국 고속버스 50%를 휠체어 탑승가능한 고속버스로 도입할 것”도 촉구했다.

자유발언에 나선 한 장애인은 “철도, 열차가 없는 고향 전북 부안은 고속버스만이 유일한 교통수단인데 아직까지 버스를 타고 단 1번도 고향에 가지 못했다. 이번 사업이 제대로 이뤄져 고향에 버스로 가고 싶다”고 토로하기도 했다.

또 전장연은 국토교통부에 교통약자법을 개정해 장애인들의 이동권과 관련해 △시내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28일 오후 서울 서초구 반포동 강남고속버스터미널 경부선 광장에서 정부의 ‘제3차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계획’ 아래 추진 중인 ‘휠체어 탑승가능 고속버스’ 시범사업을 반기면서 “교통약자법 가치를 예산 문제로 훼손하지 말라”고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버스 대·페차버스 때 저상버스 도입 의무화 △교통약자법에 휠체어탑승 가능 고속버스 50% 도입 명시 △광역이동지

원센터 설치 및 운영비 지원 △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른 장애인 이동권 기준 마련도 함께 주문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전남직업능력개발원-조선대학교 SW융합교육원

장애인 SW전문인재 양성 및 일자리 창출 위한 업무 협약

드론조종과정 교육생 20명 전남직업능력개발원 견학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전남 직업능력개발원(원장 정호연)은 지난 23일 장애인 SW 전문 인재 양성 및 관련 분야 일자리 창출을 위해 조선대학교 SW융합교육원(원장 정일용)과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장애인의 직업 능력 향상과 일자리 지원을 위해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유지하기로 약속했다. 이에 따라 장애인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공동 개발하고, 장애인 교육생의 드론 및 SW 분야의 취업과 장

업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날 업무협약식에는 조선대학교 SW융합교육원에서 진행하는 드론조종과정 교육생 20명이 참석하여 자리를 빛냈으며, 협약식 진행 후 전남직업능력개발원을 견학하며 교육과정을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기도 했다.

정호연 원장은 “오늘 맺은 업무협약이 장애인 직업재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며, “산업의 변화에 부응하는 새로운 교육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발해 능력 있는 장

어진 인재 키워내는데 앞장서겠다.”고 앞으로의 포부를 밝혔다.

전남직업능력개발원은 호남·제주지역 장애인의 직업교육훈련과 직업재활을 위해 2002년에 개원한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산하 장애인 전용 공공직업능력개발 훈련기관이다. 최근 드론조종자격증 과정과 3D프린팅 과정과 같은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교과과정을 추가하여 고기능 장애인 인력 양성에 힘쓰고 있다.

조선대학교 SW융합교육원은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SW 전문 인재를 양성하고자 설립된 조선대학교의



교육기관이다. 인공지능·정보보호·VR/AR·지능IoT·빅데이터 5개 분야에 전공 트랙제도를 도입해 전공별로 심화교육 및 산학연계교육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방과후 SW특강과 SW교사 양성교육, 지역SW봉사활동 등의 사회적 활동을 통해 4차 산업혁명의 가치 확산을 주도하고 있다.

광주시, 내달 2일 무등산 정상

개방 행사에 중증장애인 동행한다

광주시는 11월2일 올해 두 번째 무등산 정상 개방행사에 중증장애인과 보호자 등 48명이 함께 한다고 27일 밝혔다.


시는 광주장애인재활협회를 통해 참가자를 공개 모집했다. 무등산 정상개방 구간은 서석대 주상절리에서 군부대 후문을 통과해 부대 내 지왕봉과 인왕봉을 관망하고 부대 정문으로 나오는 0.9km 구간이다. 개방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다. 서석대 마지막 입장은 오후 3시30분이다.

시는 지난 10일 군부대, 국립공원사무소, 무등산보호단 체험의회, 산악연맹 등 13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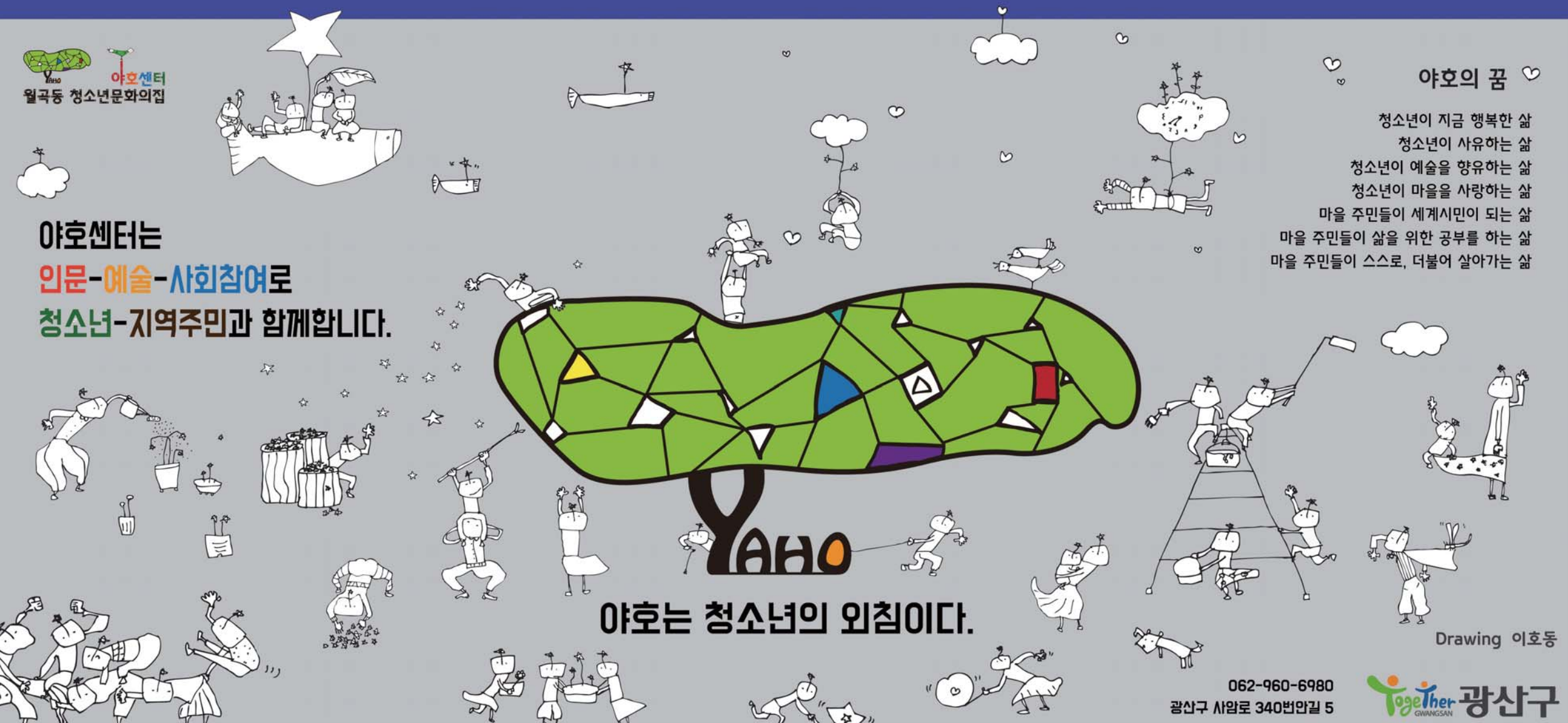
기관 관계자들과 함께 탐방객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대책 회의를 열고 질서계도 요원의 취약지역 집중 배치, 119구급차량과 헬기 현장 배치 등 안전 대책을 세웠다.

차량 혼잡구간인 총장사에서 산장까지는 불법주차차로 인한 탐방객 불편을 줄이고 질서유지를 위해 북구 교통부서와 북부경찰이 단속을 강화한다. 원호사 구간 시내버스를 늘리고 임시 주차장도 확보하기로 했다.

이번 행사는 탐방 예약제로 시행하는 만큼 사전 예약이 필수다. 인터넷을 통한 사전 예약은 국립공원통합예약시스템에서 가능하며 현장접수(장불재, 목교, 서석대)도 추가로 진행된다.



야호센터는
인문-예술-사회참여로
청소년-지역주민과 함께합니다.




야호는 청소년의 외침이다.

야호의 꿈

- 청소년이 지금 행복한 삶
- 청소년이 사유하는 삶
- 청소년이 예술을 향유하는 삶
- 청소년이 마을을 사랑하는 삶
- 마을 주민들이 세계시민이 되는 삶
- 마을 주민들이 삶을 위한 공부를 하는 삶
- 마을 주민들이 스스로, 더불어 살아가는 삶

062-960-6980
광산구 시암로 340번안길 5



광산구